사실상 분당 된 국민의힘

〈分黨〉

윤 휘 종 의
잠시 쉼표

국민의힘은 이미 '사실상 분당' 상태가 됐다.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 이후 새로운 당 대표를 뽑아 심기일전하겠다며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 전당대회는 분당(分黨)대회가 돼 버렸다.

실제로 분당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분당을 주도하고 새롭게 세력화할 정도의 그릇도 국민의힘에는 없어 보인다. 어쩌다 국민의힘이 화끈하게 분당도 하지 못하면서 자중지란을 맞게 됐을까.

총선 패배 이후 당을 수습하겠다며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나선 것부터 갈등은 예고됐다. 본인의 정치적 세력을 만들기 위해 출마한 한동훈 후보와, 대통령실과의 교감으로 당을 내줄 수 없다며 나선 원희룡 후보는 애초에 서로 결이 달랐다.

이들의 갈등은 말싸움으로, 감정싸움으로, 폭로전으로 번졌고, 같은 당의 당원들끼리 의자를 집어던지고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두 율사들 간의 싸움은 법적 지식도 풍부해서 추후 독화살이 돼 돌아올 것이다. 전당대회가 끝나도 댓글팀 운영 문제는 그냥 덮을 수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의힘의 '무능'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폭주를 막지 못한다. 지금 민주당의 모든 역량은 '이재명 방탄'에 맞춰져 있다. 방탄을 위해 고(故) 채 상병 특검을 밀어붙였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까지 다시 꺼냈다. 이재명 전 당 대표 수사와 관련 있는 검사 네 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이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두 장짜리 탄핵청원서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소환할 방침이며, 23개 기관에는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 탄핵청원서에는 심지어 대북확성기 사용도 대통령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다. 상식을 넘어선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런 상황은 사실 총선 직후 이미 예견됐었다. 총선 직후 민주당 압승 결과에 대해 이재명 당 대표는 민심이 민주당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며 겸손함을 보였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민주당은 국회의 주요 상임위원회 자리를 독차지하다시피 했다. 국회의 관례나 법도 무시하고 법제사위를 비롯한 주요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 심판을 선택했다'를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로 해석했고, 이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란 뜻'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이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에는 공감이 가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17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도 양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여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이를 증명한다.

우리 국민 가운데 여러 설문조사에 양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하는 적극 지지층은 30~40%이며 기타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국민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0%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한 상태여서 30~40%를 차지한 쪽이 모든 것을 휘두르는 왝 더 독(Wag the dog)의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경제부장 yhj@metroseoul.co.kr

도랑 쳐야 가재 잡는다

기자 수첩
김 정 산
〈금융부〉

14년 전 인도와 네팔에서 1년 가까이 지냈다. 주로 인도에 있었고 네팔은 비자 갱신을 위해 2개월간 머물렀다. 씨티은행에서 발급받은 현금카드만 가지고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서 네팔까지 기차와 버스에 몸을 맡긴 채 5일 밤낮을 이동했다.

인도에는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신용카드 단말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심지어 중간 규모쯤 되는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도 현금만 취급했다. 인도루피(INR)와 네팔루피(NPR)를 적당히 섞어 한화 150만원정도를 인출했다. 당시 인도에서는 50만원이면 4인 가구가 한달은 여유롭게 보낼 수 있었다. 워낙 큰 액수인 만큼 잘 때도 고무줄로 꽁꽁 싼 뭉칫돈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잤다.

출퇴근을 위해 공항철도를 타는 일이 잦다. 매일 출근길에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을 찾은 관광객을 만날 수 있다. 그중에는 14년 전 나처럼 현금다발을 가진 외국인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처음에는 의아했다. 구멍가게도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한 나라에 왜 현금다발을 챙겨서 오는 걸까? 답은 멀리 있지 않았다. 결국 인프라 부족에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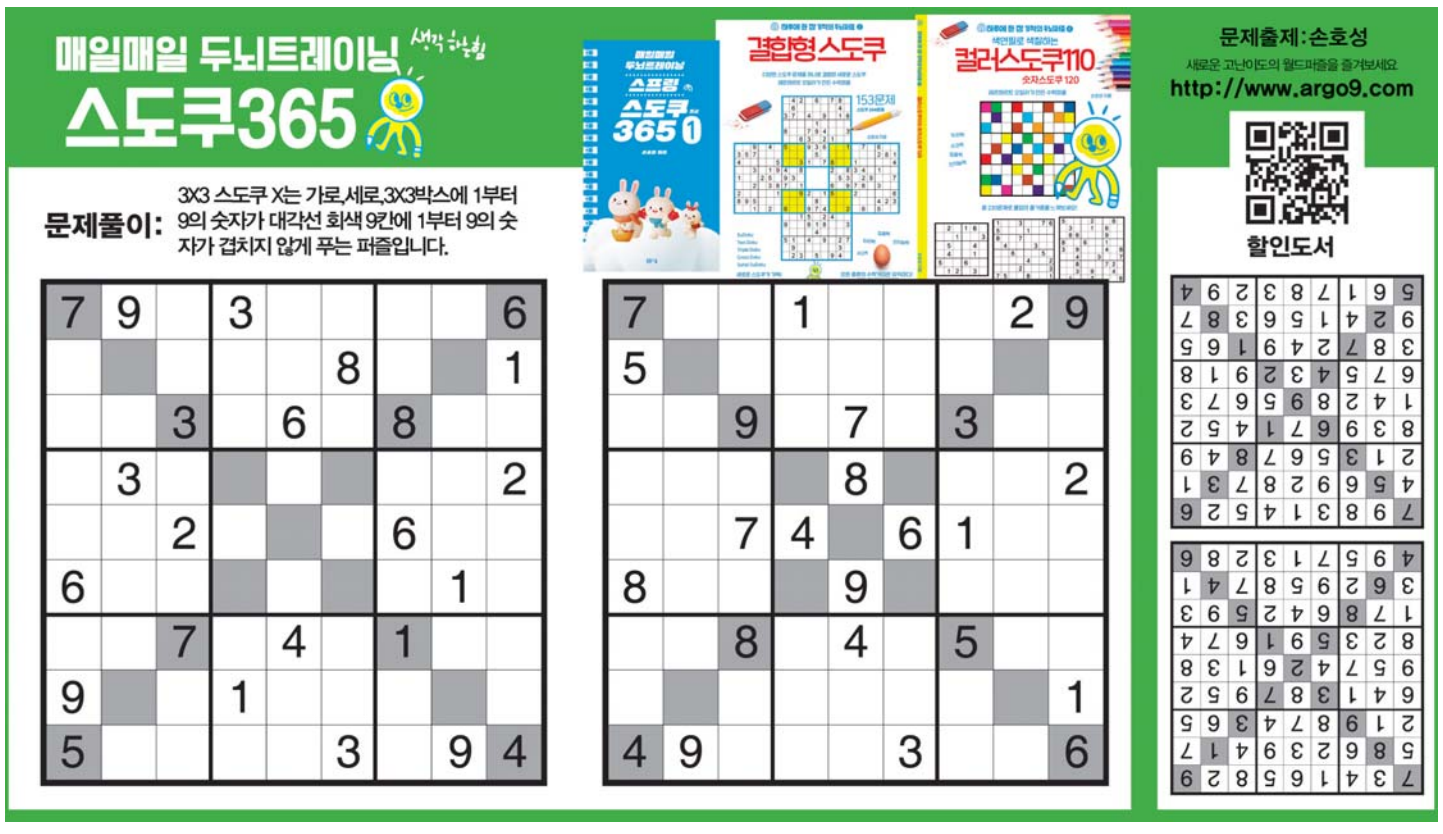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모바일 QR결제 공통규격을 마련했다. 카드사별 QR코드 규격이 모두 다르니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취지다. 국제 표준인 EMVCo의 QR규격을 따른 만큼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편리하게 QR결제를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함께 발표했다.

카드업계에서도 언젠간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진짜 시급한 것은 근거리 무선 통신(NFC) 단말기 보급이다. 각종 'OO페이'의 등장으로 결제 편의성을 높여줄 도구가 신용카드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추세다.

애플의 본고장인 미국은 NFC단말기 보급률이 100%에 가깝다. 현금을 선호하기로 유명한 일본만 하더라도 지난 2006년부터 NFC단말기를 출시했고 최근 확산 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전해진다.

QR결제 가맹점을 확보하면서 NFC단말기 보급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행에서 소비는 필수 요소다. 결국 외국인 관광객에게 소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선 NFC단말기 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필수다. 도랑 쳐야 가재도 잡는다고 했다. 한국의 오프라인 결제 시장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해야한다.

/kimsan119@



오늘의 운세

7월 18일 (음 6월 13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마음 따로 몸 따로 움직인다. **48년생** 내가 놓은 덫에 내가 걸리니 조심해라. **60년생** 흐르는 물처럼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72년생** 직장인은 특히 끝맺음을 잘해야 한다. **84년생**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니 오늘은 행복.

소 **37년생** 불행을 입 밖으로 내뱉지 마라. **49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른 법이다. **61년생** 동분서주해 봐야 별 이익은 없다. **73년생** 즐거운 일 어깨를 으쓱할 일이 생긴다. **85년생**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니 꾸준히 노력해라.

호랑이 **38년생** 열정과 힘이 넘치는 하루가 될 것. **50년생** 참고 기다리는데 고통받던 구설수가 해결된다. **62년생** 오늘만큼은 자신을 위한 하루를 보내라. **74년생** 평소의 준비가 역량을 크게 한다. **86년생** 오늘은 길을 나서면 우연한 행운이 온다.

토끼 **39년생** 남이 차린 밥상에 마음이 쓰인다. **51년생** 모래 위에 쓴 약속은 바람 불면 지워져 버린다. **63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 겸손해야 한다. **75년생** 마음에서 뿌린 대로 거두니 정직하게. **87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나갈 운.

용 **40년생** 애완견을 버리면 유기견이 되는데 인생도 같은 이치. **52년생** 변화가 있어도 하던 일을 마무리. **64년생** 과거 인맥으로 이익을 얻는다. **76년생** 동료들과 재물로 인한 경쟁이 생겨도 결과는 서로 좋다. **88년생** 헛된 희망이 눈을 가린다.

뱀 **41년생** 고집을 피우면 외면하니 적당히. **53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오니 감사하다. **65년생** 보이스 및 피싱에 조심을. **77년생**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게 되니 투자는 하지 말 것. **89년생** 실력이 없으면 직장에서 불평이 많게 되니 불평보다는.

말 **42년생** 귀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54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서명은 신중하게. **66년생**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78년생** 많이 힘들지만 성의를 다하면 행운이 온다. **90년생** 양띠를 만나 지식적으로 도움을 얻게 되니 서류가 마무리된다.

양 **43년생** 개척자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55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다. **67년생** 운이 상승하고 있으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79년생** 책임진 일을 주변 도움으로 해결한다. **91년생** 젊을 때는 비슷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차이가 나게 되니.

원숭이 **44년생** 사는 날까지 돌다리도 두들겨야만. **56년생** 요행을 바라지 말고 정도를 걸어라. **68년생** 성공한 사람 뒤를 따르면 실수가 적다. **80년생** 도전해라 도전하지 않으니 기회도 없다. **92년생** 친구의 이혼에 관여하면 결국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닭 **45년생** 삶의 질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 **57년생** 비가 오고 바람 불어대니 비옥한 땅이 되겠다. **69년생** 시작하지 않으니 변하는 것도 없다. **81년생** 조심할 부분이 생김 백마 타다 자칫 떨어진다. **93년생** 원하는 바가 있으면 배우자에게도 표현을.

개 **46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상황. **58년생** 말은 쉬우나 주워 담을 수 없다. **70년생** 백만 송이 장미가 발아래 깔려 있다. **82년생** 기분 나빠 이직을 하려면 소나기 피하려다 우박 맞는 격된다. **94년생** 사랑하며 사는 오늘이 행복한 날.

돼지 **47년생** 매매에 어렵던 문제가 풀린다. **59년생** 문서가 아름다운 전망으로. **71년생** 주변 지지와 배려가 힘이 된다. **83년생** 기다리던 금전 문제가 풀리는데 차량은 조심하도록. **95년생** 될 성 나무는 남이 알아보니 탄생한 아기 자랑하지 않는 것이.

김상회의 四季

그리운 푸바오

팍팍한 마음에 희망을 주고 웃을 수 있게 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마음이 행복해진다.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 위로를 주고 웃음을 줬던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아가 푸바오다. 푸바오를 보며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중국으로 지난 4월 한국을 떠나간 공주 푸바오는 지금 국제 협약에 의한 것이니 뭐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는 중국으로 간 푸바오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의혹이 현실로 자꾸 나온다는 것이다.

등과 이마 부분에 탈모가 생기고 털 색깔이 변하고 살 색도 변하는 푸바오의 모습에 가슴이 아려온다. 그뿐이 아니다. 유출된 사진을 보면 누군가 푸바오를 맨손으로 만지고 먹이를 주는 모습도 있다. 아가 푸바오에게 절대적 애정을 보내는 사람들이 학대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영상을 보면 푸바오가 거주하는 방사장은 시멘트 바닥이고 공간도 무척 좁다. 야외인데도 흙을 찾아보기 힘들다. 나무 타고 오르며 놀기를 즐기는 푸바오에게는 좋은 환경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 있을 때는 좋은 흙과 풀이 많은 곳에서 나무를 오르내리면서 즐겁게 보냈었다.

먹는 것도 품질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푸바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얼마 전 중국연구센터가 공주 푸바오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을 했지만 걱정이 덜어지는 건 아니다. 푸바오를 향한 마음이 그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푸공주는 많은 사람에게 때로는 살아갈 힘을 선사해준 행복의 샘물 같은 존재였다. 푸바오공주를 둘러싼 의혹이 나오지 않아 우리들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길, 아가 푸바오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7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7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